

# 머리말

## 머리말

나는 이 소략한 작품으로 원대한 계획을 구상했다. 여기서 나는 유럽의 것과는 다른 땅과, 유럽의 것과는 다른 초목을 그려내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네 시인들은 그들이 가꾼 연인들을 개울가에, 초원 위에, 잎이 우거진 너도밤나무 아래 실컷 데려다 놓고 또 데려다 놓았다. 나는 그 연인들을 바닷가에, 바위 밑에, 코코넛나무와 바나나나무와 꽃 핀 레몬나무 그늘 아래 앉혀두고 싶었다. 지구 반대편에는 테오크리토스나 베르길리우스<sup>1)</sup> 등이 없을 뿐이지, 거기서도 우리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구미가 당기는 정경들을 만나볼 수 있으리라. 나는 풍부한 미감을 가진 여행자들이 우리에게 남쪽 바다에 있는 몇몇 섬을 매혹적으로 묘사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곳 주민들의 풍속은, 더욱이 그곳에 도착한 유럽 사람들의 풍속은 그 풍

1) 테오크리토스(Theokritos, BC310?-250?)는 고대 그리스 시라쿠사 태생의 시인. 그는 소품집 『전원시』